

동사하는 불교 시사서원 02)745-8503
 이)1)286-2680 서울 성북구 성북동
 실상선원 041)734-2680
 대인 돈산인선원 주성리 대인 돈산인선원 주성리

법익 조대 덕해 스님 불교인양원 이사장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깥세상이 아니라 바로 자기 속의 나입니다. 나를 위한다는 마음을 벗으면 아무것도 결핍 것이 없습니다."

"수행을 해도 번뇌에 사로잡혀 있으면 수행이 아니요, 사소한 일을 해도 정신을 통일하면 그것이 곧 수행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8·9면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박교수의 한국불교 비판

"중생을 위하여보다 참선에만 몰두하는 스님과 기복적 신앙에만 매달리는 속인들 사이의 유일한 연결고리는, 기복적 의례와 불전(佛殿)의 헌납인 것 같다."

귀화 러시아인으로 한국사회에 고언을 아끼지 않고 있는 박노자 교수(노르웨이 오슬로국립대의 이단 한국불교 비판을 둘러싸고,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박 교수는 최근 발간된 격월간 <침어불교> 5-6월호

교에 대해 일부 부정적인 면만을 강조한 느낌이 있다며 한국 불교 전체에 대한 균형있는 이해를 주문하기도 했다.

해인사 원철스님은 "자타불이(自他不二)의 불교정신으로 볼 때 사회봉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그러한 보시는 수행을 위한 것이지, 사회봉사 자체가 불교의 목적일 수는 없다"며, 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중시하는 불교의 본질을 비껴간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나 박 교수의 애정 어린 충고에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한국불교계가 자신 있게 박 교수의 지적이 모두 현실과 다르다고 반박할 수 있을 만큼 중생의 고통(苦)와 함께 해왔느냐는 것이다. 자리(自利)와 이타행(利他行)을 겸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었으며, 이로 인해 한국불교도 뒤늦게나마 사회복지와 포교 등 사회중생을 위한 봉사에 힘을 쏟기 시작했지 않느냐는 것이다.

박 교수가 비록 이런 변화의 움직임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해외불교를 조망하고 있는 제3자의 시각에서 한국불교를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충분히 참고할 가치가 있다. 이제는 한국불교도 이웃과 사회, 나아가 세계를 구제하는 대승불교의 진면목을 보일 때다.

김재경(취재1부 차장)



에 기고한 '화화중생(下化衆生)이 없는 한국 선종'이라는 글에서 "한국불교는 참선을 통한 깨달음을 얻어진다든 사물(佛)이나 음주를 쉽게 용서하는 이원론 지계의식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보시금의 용도가 투명해지고, 철저히 사회적 용도로만 사용돼야 한다고 박 교수의 지적에 전폭적 공감을 나타냈다. 반면 어떤 불자들은 박 교수의 애정어린 비판은 인정하면서도, 한국불

경부고속철 환경평가 '부실'

천연기념물 등 보호 동·식물 터널공사영향 누락

이병인 교수 '금정산·천성산 통과 반대' 토론회서 주장

경부고속철도 부산·경남권 건설사업에 대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부실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면피부름 준 평가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부산일보사 강당에서 열린 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성산 통과반대를 위한 1차 토론회에서 이병인 중앙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93년부터 조사가 실시돼 94년 최종 제출된

부산경남구간의 환경영향평가서 자료는 자연생태계분야에서 기존 자료와 차이가 현저하다"고 지적했다. "금정산·천성산 경부고속철도 통과시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이라는 이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전체적인 동식물의 종수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지정한 희귀동식물의 존재 조차 언급되지 않았다"며 "천연기념물 할조통이, 참매와 보호종인 수리부엉이, 붉은 배새매 등 50여종의 보호

동식물과 습지식물 64과 219종을 비롯 200여과 800여종의 식물이 누락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경남 75km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가운데 핵심이라 할 수 있는 56.6%에 달하는 42.4km의 터널구간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98년 울산 무제치늪이 국가생태계보전지역으로, 2002년 천성산 화염늪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이에 대한 재평가는 전혀 고려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 개발부서에 면피부름 주기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밖에도 생태적, 지하수 및 지질학적, 문화적 영향에 대한 신뢰할만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환경영향 및 평가가 수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충분한 조사를 통한 검증이 있기 전에는 사업을 중단하고 적절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정산 고속철도 통과반대 시민공동대책위원회와 금정산·천성산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합세영 부산대 지구환경시스템부 교수도 "고속철터널의 금정산·천성산 통과에 따른 지하수 및 지질학적 영향과 문제점"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터널관통으로 대량의 지하수가 누출되어 지하수 고갈, 동래천수고 고갈, 습지 등 생태계 파괴의 우려가 높다"며 이병인 교수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천미희 기자 micheon@buddhapa.com

제8차 국제여성불교대회

2004년 서울서 열린다

제8차 국제여성불교대회가 오는 2004년 서울에서 전국비구니회(회장 공우) 주관으로 열린다.

전국비구니회 회장 공우스님은 24일 국제불교여성대회(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Women), 일명 '꽃다의 딸'(Sakyadhita) 회장 맥세 쵸모 스님으로부터 제8차 대회를 한국에서 맞이할라는 요청을 받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1-18일 대만 타이베이 화법대학에서 '선여인(善女人)-세계의 교양'을 주제로 열리는 제7차 국제불교여성대회에 중앙승가대 비구니연구소장 본각스님과 비구니회 사회국장 담교스님 등 대

표단40명 내외의 참석, 수락 연설을 할 예정이다.

세계 각국의 여성 불교학자와 수행자, 사회운동가들이 다양한 현대사회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2004년 서울 국제불교여성대회는 한국 비구니 승단의 존재를 세계에 알리고 그 위상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7차 대회의 소주제는 △세계의 불교 여성에 대한 이해 △대만 불교계의 여성에 대한 이해 △불교 전통간의 대화 △수행과 일상의 실천 △상호이해와 중생구제 △전통과 현대 등이다.

김재경 기자 jgm@buddhapa.com



"깨달음을 위한 험악한 정진" 깨달음을 얻기 위한 험악한 정진이 시작됐다. <사분음(四分律)>에서 부처님은 사문들에게 "지금부터 여름 석달 동안은 인가를 하라"고 말씀했다. 하안거 결제 이튿날인 24일, 정각 성취를 서원하고 '문없는 문'을 되기 위해 한남자가 북한산 망월사 천중 선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망월사=고영배기자

해인사 등 6대 총림·각 선원 하안거 결제 1800여 남자 석달간 참선 정진

해인사 승사 수덕사 풍도사 백양사 선암사 등 6대 총림을 비롯 전

국의 각 선원은 26일 일요일 하안거 결제식을 갖고 3개월 동안의 참선정진에 들어갔다.

이번 하안거에는 총림선원 6곳, 비구선원 50여곳, 비구니선원 30여곳, 하와이 무량사 태평선원 등에서 회 개최와 한국불교를 알리는데 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하안거에는 총림선원 6곳, 비구선원 50여곳, 비구니선원 30여곳, 하와이 무량사 태평선원 등에서 회 개최와 한국불교를 알리는데 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연합회장 법장스님(수덕사 주지)도 25일 "세계적인 축제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돼 참으로 기쁘다. 이번 월드컵은 세계속에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최고의 호기"라며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내 가족을 대하는 마음으로 한국의 전통과 문화와 예절을 알려 한국의 진솔한 모습으로 국민을 대하고, 우리의 전통적인 생활문화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자"고 말했다.

조계종 중정 법전스님은 결제법어를 통해 "주인어린 구름이 정수리를 덮음으로 손님이란 백성이 눈섭을 덮는 것이로다. 서로의 거리란 문지기의 권한에 한계가 있는 것이요, 손님과 주인의 이야기란 속소리 금소리로구나"라고 설한 천동 정각 선사의 글귀가 옛 선지식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라며 수행 정진을 독려했다.

※ 총림 법장 법어 3면

김원우 기자 wkim@buddhapa.com

초파일 휴가로 이번호 16면 발행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불교사이트 유료화

1. 불교전문 사이트의 일부 콘텐츠를 유료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해야 한다 ②콘텐츠의 특성에 따라 해야 한다 ③시기상조다 ④해서는 안된다

2. 불교전문사이트의 유료 콘텐츠를 이용할 생각은 있습니까?

- ①있다 ②없다

설문 참여: 5월 30일까지 buddhaneews.com에서 참가하세요. 무점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72호 9면에 실습니다.

불교계 최초 교육인적자원부 인가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개교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불교의 사회봉사·상담심리 등 관련분야의 학문을 연구하고 교수하는 전문대학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혜와 지비로서 개인적으로는 인격을 완성하고 사회 국가적으로는 불교도를 건설하는 사상입니다. 따라서 본교는 지혜의 개발과 지비심의 함양을 교육의 지표로 삼고, 민족과 인류사회의 이성을 실현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 양성을 교육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석사과정·연구과정 학생모집

국내 유일의 불교전문대학원인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9월 1일 개교합니다.

- 1. 모집 학과 및 인원
- 1. 모집학과: 불교학과·상담심리학과·사회복지학과 2. 모집인원: 석사과정 - 50명, 연구과정 - 약간명

II. 지원자격

-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2. 출신학과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가능

III. 전형일정

- 1. 원서교부 및 접수: 5. 20 (월) ~ 6. 05 (수) (www.sgs.ac.kr)
- 2. 전형일시: 6. 8 (토) 10:00 3.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
- ※ 입학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사용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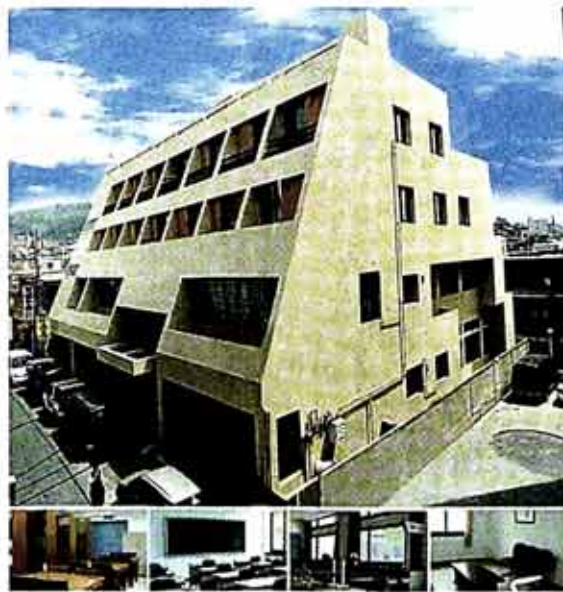
IV. 특 전

- 1. 성적우수자 및 모범학생 등록금 전액 또는 반액 장학금 지급
- 2. 상임연구원 선발 각종 혜택 부여 3. 우수 졸업생 해외유학지원 가능
- 4. 성적이 우수하고 인품이 훌륭한 교사자격증 소지자는 학교법인 보문학원 산하 각종 학교 교사 또는 재단법인 불교인양원 산하 각 사찰 법사로 채용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대학교 명칭에 문의하시거나 본교 홈페이지(www.sgs.ac.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석사과정·연구과정 외에 특별과정, 사회교육원도 운영 함.

본 대학원대학교의 운영지원으로는 학교법인 보문학원(보문)이 있는 수암을 기본 재산에서 조성되는 수익금 이외에도 재단법인 불교인양원 보광사 영각당(납골당)에서 조성되는 수익금이 있습니다.



회원모집 안양 보광사 영각당(납골당)

안양영각당 입구에 위치하여 서울에서 가장 깨끗하고 최고의 시설과 높은 신뢰를 자랑하는 재단법인 불교인양원 보광사가 납골당을 준공하여 회원을 모집합니다. (전철 1호선 권역역 도보 10분)



(장례에서 납골·49제까지 완벽한 서비스)

재단법인 불교인양원 보광사는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교육부 인가 전문대학원)·보문중, 고등학교(대전)·안양사도안복자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믿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자체주차장과 공용주차장 600대 주차가능)
 031-471-3322, 02-808-3321 www.bojangsa.co.kr

※ 영각당(납골당)에서 영결되는 수익금은 전액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보문중·고등학교(대전), 안양사도안복자센터의 운영에도 사용될 것입니다.